



한국음악협회 속초지부의 콘서트

음악과 함께 떠나는

겨울여행

2015. 12. 17 목 오후 7시
속초시문화회관 대강당



테너 박수환 & **FUNNYBAND**

'SING SING SING' CONCERT



주관 : 한국음악협회 속초지부

주최 : 속초시 속초예총

후원 : 강원문화재단

Gyeonggi-do Culture Foundation

인사말씀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속초지부장 강 은 희

화려한 축제 속에서 2000년을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2016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세월이 살 같이 빠르다는 게 실감납니다.

너무나 바쁘게 뛰어온 한 해였습니다.
이제 숨 가쁘게 뛰어온 한 해를 정리하며
아쉬움을 뒤로 남긴 채
차분히 새해를 준비하여야 할 때입니다.

지나간 한 해를 마무리 하며
음악협회가 정성을 다하여 콘서트를 준비하였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여유를 갖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2015. 12. 5

공연장 에티켓

- 단정한 복장으로 관람합니다.
- 취학전 아동(만7세 미만)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 공연 시작 10분전까지는 자정좌석에 앉습니다.
- 공연 중 휴대전화의 사용(벨소리, 불빛)은 절대 삼갑니다.
- 공연 시작후에 오신 분들은 반드시 안내도우미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공연 도중에는 절대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program

진행 조영숙

테너 박수환

Acc. 박민지

뱃노래 – 조두남 곡

Nella fantasia – The mission 中 – ennio morricone

Salut! demeure chaste et pure – 오페라 faust 中 – gounod

FUNNYBAND

Just a closer walk (저스트 클로즈 워크)

- 미국의 민요로 음악에 반전이 있는 곡이기도 한 이 곡은 처음은 느리며 클래식한 분위기이나 끝부분에선 활기차고 신나는 리듬으로 흥을 돋우고 있다. 많은 브라스밴드들이 부르는 곡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Instant Concert (인스턴트 콘서트)

- Harold L. Walters가 그의 아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악기를 연습하는데 더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편곡. 세계적인 유명 취주악 30곡에서 발췌한 멜로디들이 재치있고 흥겹게 연결되어 있다.

Beale street blues (빌 스트리트 블루스)

- 블루스의 대부라고 불리어진 W. Chandy의 1916년 작품으로 블루스의 원조이다.

Sing sing sing (싱싱싱)

- 필립 케른이 편곡한 곡으로 영화 "스윙걸즈"의 OST로 잘 알려진 곡이며 스윙재즈라는 음악의 한 스타일로 재즈의 리듬 특성을 그대로 살려 듣기만 해도 어깨가 들썩들썩 거리는 곡.

In the mood (인더무드)

- 글렌밀러가 작곡한 이 곡은 재즈풍의 곡으로서 신선한 감각의 연주로 유명하다 듣고 있으면 흥이 절로나며 스윙하는 재즈의 맛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곡이다.

William Tell Overture (윌리엄텔 서곡)

- 오페라 개막전에 연주되는 서곡 중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곡으로 총 네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행진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로시니 작곡.

Clear the line (기차 퍼포먼스)

- 기차를 연상하여 만든 곡으로서 빠른 리듬과 활동적인 멜로디가 인상적이다. 실제 기차의 소리를 내며 기차를 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한다. 베이스의 역할이 가장 많은 곡이기도 하다.

Can can (캉캉)

- '샤워'라고도 하며 처음에는 다리를 높이 차올리는 것이 특징인 서민적인 춤이었으나 1845년경 부터 카지노나 뮤지홀의 쇼로 등장하여 물랭루즈를 근거로 파리의 명물이 되었다.

When The Saints Go Marching (성자의 행진)

- '성자의 행진' 이 곡은 미국 구전 가요중 하나인데 루이 암스트롱 혁분에 세상에 알려진 곡이다.

(앵콜1) Rock's roll medley (락큰롤 메들리)

- 신나는 락큰롤 메들리로 락의 강한 비트와 트럼펫 연주자가 직접 보컬로 열정적인 무대매너가 돋보이는 곡.

profile & Guests



테너 박수환

- 명지대학교 음악학부 성악과 졸
- 신입생음악회
- 2012 용인 국제음악 페스티벌 잔니스끼끼 주역
- 2013 kics 콩쿨 대학부 3등
- 2014 kics 콩쿨 일반부 1등
- 명지홀리콰이어 상임 단원
- 다수오페라 주역 (리골렛또 . 라보엠 . 돈 파스콸레)

반주자 박민지

- 이화여대 음악대학원 재학
- 현. 명동 성당, 제기동 성당, 그린 합창단 반주자

FUNNYBAND

- 통영국제음악회 프랜지 부분 대상 수상
- 2010 메세나협의회 투어 콘서트
- KBS 클래식오디세이 출연
- KBS 1대100 출연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_렉처콘서트
- G20정상회담 개최 홍보 캠페인(30일간)
- 2012 하이서울페스티벌_시청광장
- 신정호 별빛축제_아산문화재단
- 에스오일 주먹밥 콘서트
- 세종별밤축제_세종문화회관
- 서울시립교향악단 음악회
- 제주올레검기페스티벌 콘서트

- KBS클래식오딧세이 출연_청주여자교도소 편
- 고양 아람누리 정기 기획 공연
- MBC창사51주년 기념식 축하공연(여의도)
- 2013 삼성전자 컨퍼런스(중국 광저우)참여
- 피니밴드 싱싱싱 콘서트(대구학생문화센터 기획공연)
- 세계인의 날 개막 초청 공연
- KBS 여유만만 출연
- 퍼니투나잇 기획 콘서트_전남 곡성문화화관
- 극동방송 신 시袖 개국 축하공연
- KBS 문화책갈피 크리스마스 특집 방송 출연
- 2015 KBS 열린음악회 출연



Trumpet 김정현

- 국립경찰교향악단 단원 역임
- 강남 대학교 졸업
-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 행사 연주
- 현 퍼니밴드 단원



Trumpet 박태홍

- 국립경찰교향악단 단원 역임
- 주계 예술 대학교 수석졸업
- 현 퍼니밴드 단원



Tuba 안종민

- 국립경찰교향악단 단원 역임
- 추계 예술대학교 졸업
- 동국대 culture MBA 석사 졸업
- 서울대 문화예술경영 박사 과정 중
- 현 퍼니밴드 단원



Trombone 이종성

- 국립경찰교향악단 수석역임
- 추계 예술 대학교 수석졸업
-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개막연주 참가
- 한국 트롬본 협회 콩쿨 2위
- 현 퍼니밴드 단원



Horn 이정민

- 국립경찰교향악단 단원 역임
- 추계 예술대학교 졸업
- 한국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 음악감독 역임
- 현 퍼니밴드 단원



Percussion(드럼) 임재현

- 추계 예술 대학교 수석졸업
- 현 퍼니밴드 리더



'클래식 전공자들이 의자를 버렸다'

-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고의 브라스 퍼포먼스 그룹
- 클래식에서 재즈, 가요, 영화음악 등 다양한 연령대가 공감할 수 있는 공연 레퍼토리
- 전통 클래식 음악을 넘어선 예술성과 대중성의 조합

Hi music~ hi comedy~ hi effect

- 고루하고 졸립 것만 같은 클래식 음악을 어깨를 들썩이며 느낄 수 있도록 관객을 배려하기 때문이다.
- 이를 그대로 유쾌함을 자랑하는 여섯 남자와 함께하는 즐거운 클래식 타임
- 연주자만 즐기는 공연 No! 함께 즐기는 공연 Yes!

고정관념 깬 흥겨운 클래식 속으로

인천일보 (2013.07.08)

퍼니밴드는 2002년 그룹 결성 이후 대중적 연주곡, 쉽고 흥겨운 연주,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결합해 어렵고 점하기 힘들다는 클래식의 고정관념을 자신 있게 깨 부수는 활동을 해왔다.

이번 공연에서는, <윌리엄 텔 서곡>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통해 브라스밴드의 매력을 훌쩍 느낄 수 있는 스윙재즈, 클래식, 팝의 기상천외한 음악퍼포먼스를 선사할 예정이다. 반짝이는 금관악기와 함께하는 검은 수트의 여섯 남자가 신나는 음악으로 관객들을 매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중략)



점잖은 클래식 연주회는 가라!

'퍼니밴드의 즐거운 클래식'

스포츠조선 (2011.07.26)

청소년 음악회 '퍼니밴드의 즐거운 클래식'이 8월 4일 수원 경기도문화의전당, 8월 11일 고양아람누리, 8월 14일 대전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퍼니밴드는 2001년 결성 이후 1500여 회의 공연을 통해 관객들에게 웃음과 재미를 선사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브라스 퍼포먼스 그룹이다. 과감히 의자를 버리고, 유쾌하게 춤추듯 연주를 선보인다. 전통 클래식의 진부함을 벗어 던지고 예술과 대중의 화합을 추구한다. 퍼니밴드라는 이름 그대로 콘서트, 마임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기차 퍼포먼스, 악기가 날아 다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블랙라이트 퍼포먼스, 자연스럽게 관객을 참여시키는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 등 상상 이상의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도 김연아가 불러 화제가 된 '싱싱싱'을 비롯해 윌리엄 텔 서곡, 어메이징 그레이스 등 다양한 곡들을 연주한다. 정형화된 클래식 연주모습에서 벗어나 연주자 모두가 흥겨운 몸동작으로 관객들과 호흡을 함께 할 예정이며 공연을 찾은 관객들을 중독시키는 마술 같은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FUNNYBAND

'SING SING SING' CONCERT



음악과 함께 떠나는 2015 겨울여행

2015년 음미년 한해도 어느덧 기억의 저편으로 물러가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좋지 않았던 '기억'은 잊고 우리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서 희망과 행복의 '기억'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 소중하게 생각한 분들과 바로 지금, 음악으로 함께 겨울여행을 떠나보세요. 여행지는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곳입니다. 마음이 닿는 곳이면 멀어도 가까운 곳이 아닐까요.

음악회를 준비해 따뜻한 겨울여행에 초대해주신 강은희 한국음악협회 속초지부장님과 음악협회 회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다시 한 번 <2015년 음악으로 떠나는 겨울여행>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음악협회 회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 기원합니다.

2015. 12. 5

(사)한국예술 속초지회장 정봉재

한국음악협회 속초지부와 함께하는 …

음악과 함께 떠나는

2015 겨울여행

2015 속초시보조금 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